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10월 17일



복음나누기

연중 제 29주일 (10월 17일)

출세와 섬김

(마르 10,35-45)



선교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세상의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시작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공공대는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마주하고 자신을 성찰해봅시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41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42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러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4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르 10,38)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나는 항구하게 주님 곁에 머물고 기도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10,27)

나는 사심없이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봉사직무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귀하신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루고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 올린 존재입니다. 부모로부터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성장하면서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자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후자는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숙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늘 내가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해 주시기만을 갈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저희가 주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4절, 5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를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